『한국민족문화』 81, 2022. 3., 257~291 http://doi.org/10.15299/jk.2022.3.81.257

한글에 함축된 음양 배속, 오행 상생, 천지인 삼원 사상 고찰

김 만 태*

1. 머리말
2. 음양·오행·삼원의 체계와 의미
   1) 삼라만상의 음양 배속
   2) 우주 만물의 오행 상생과 상극
   3) 하늘과 땅, 사람의 천지인 삼원
3. 한글 자음의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4. 한글 모음의 음양 배속, 오행 상생과 천지인 삼원
5. 한글 합자의 천지인 삼원
6. 맺음말

<국문초록>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과 얼개에 존재하고 있는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합자(合字)에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짐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가 생긴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철학적 사유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의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천지자연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소리[聲]와 모양[形]을 갖고 있는데 사람도 천지자연 사이에 존재하므로 말소리[聲音]를 갖고 있다. 사람의 말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글자를 만들 때는 말소리에 담긴 이치를 따르면 된다. 한글 창제자들은 그 이치에 지극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ware4u@hanmail.net)

한글을 만든 천지자연의 이치는 바로 태극과 음양, 천지인 삼원, 오행 등 역철학적(易哲學的) 사상이다.

한글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온 국민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으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그렇지만 한글이 어떤 철학과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음에 담긴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한글 모음에 담긴 음양 배속, 오행 상생과 천지인 삼원, 한글 합자의 음절에 담긴 천지인 삼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합자 등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여 한글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어: 한글, 훈민정음, 음양오행, 천지인 삼원, 모자음(母子音)오행

1. 머리말

만약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말은 우리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글자는 없었을 것이니 한문, 이두나 향찰, 일본어, 영어, 아니면 피진어(영어와 필리핀어가 혼합된 언어)나 맹글리시(말레이시아식 영어)와 같은 특이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

언어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규정하며 사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내면의 인식과 사유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한글이 만들어짐은 우리 민족이 비로소 인식과 사유의 공동체 기반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사회에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적 수단은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자들!

1) 최경봉·시정곤·박영준,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함께, 2013, 5~10쪽 참고.

은 언어에 담긴 형이상학과 우주론을 지고(至高)의 경지로 함축하고 체계화하였다.[2)]

15세기까지 조선에서 에크리튀르(écriture, 문자, 쓰는 것, 쓰여진 것, 쓰여진 知)의 모든 것은 한자한문(漢字漢文)이었다. '지(知)'의 모든 것은 한자한문에서 성립되었다. 그것이 당시 세계의 전부였다. 그러한 한자한문의 세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정음(正音)'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15세기 조선에서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이 출발했을 때의 구도이다.[3)]

한글[4)]은 사람의 말소리를 글자 형태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음양오행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두루 조화되는 동양의 전통 철학을 담은 문자이다. 한글은 언어학과 음악, 역철학(易哲學)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융합해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글은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되고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란 책자로 반포되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언어'로서 조선 시대 1443년(세종 25) 세종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제하여 1446년(세종 28) 반포한, 모두 28자(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문자로 한글의 첫 이름인 훈민정음이다.

다른 하나는 '책이름'으로서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간행한 목판본 책자인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은 모두 33장(張) 1책이며 ① 세종 어제(御製) 서문 ② 예의(例義) ③ 해례(解例) ④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김만태, 『한국 성명학 신해』, 좋은땅, 2016, 81쪽.

3) 노마 히데키 지음, 『ハングルの誕生 音から文字を創る』,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옮김,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2018, 226~227쪽.

4) 15세기에 한글이 탄생한 조선 시대에서는 한글을 주로 '언문(諺文)'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언문은 '전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기어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본래의 뜻과 다르게 훈민정음을 낮잡아 일컫는 말이 되어 버렸다. 1910년 이후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이 '큰' 뜻의 '한'을 붙여 '하나의 큰 글'이라는 의미로 '한글'이라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비로소 한글의 이름도 '훈민정음'이라는 한자어의 외피를 벗은 것이다.

'예의(例義)'는 세종이 직접 지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와 훈민정음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되는 문장은 '예의'의 첫머리에 있는 한문(漢文)으로 된 서문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흔히 『훈민정음 언해본』이라 부른다.

'해례(解例)'는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제자해(制字解) 및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실제 단어로 용례를 제시한 용자례(用字例)로 구성되어 있다.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이 '해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른다.[5)]

『훈민정음해례』〈제자해(制字解)〉 첫머리에서 "천지만물의 이치[道]는 오직 음양과 오행뿐이다. (음이 극에 다다른) 곤(坤)과 (양이 다시 막 생겨나는) 복(復) 사이에서 태극(太極)이 되며, (태극이) 움직이고 멈춘 후에 음양이 되는 것이다.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어찌 음양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理]가 있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 오직 말소리에 따라 (본래부터 있던) 그 이치[理]를 다 밝혔을 뿐이다."[6)]라고 하였다.

즉,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소리[聲]와 모양[形]을 갖고 있는데 사람도 천지 사이에 존재하므로 말소리를 갖고 있다. 사람의 말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글자를 만들 때는 말소리에 담긴 이치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있었다. 한글을 만든 천지만물과 자연의 이치는 바로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원이다.

『훈민정음』〈정인지서(鄭麟趾序)〉 첫머리에서도 "천지자연의 소리[聲]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

5) 노마 히데키 지음, 앞의 책, 26쪽.

6) 『訓民正音解例』〈制字解〉,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의 도리[理]를 (글자에) 실었으니 후세에도 바뀌지 못하는 것이다."[7]라고 해서 사람 성음(聲音)을 태극과 음양, 천지인 삼원, 오행 등의 역학적 이치로 설명하였다.

이는 우주만물과 자연의 모든 이치가 역(易)을 근거로 해서 발달한 태극·음양·오행 등에 있다고 생각한 송대 신유학(新儒學)의 사유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소옹(邵雍, 1011~1077)은 도가(道家)사상의 영향을 받고 유교의 역철학(易哲學)을 발전시켜 뛰어난 수리철학(數理哲學)을 만들었는데 그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서 성음(聲音)의 이치를 안 이후에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8] 그의 이론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더불어 동양 우주론의 근원사상이 되었다.

한글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온 국민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으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그렇지만 한글이 어떤 철학과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또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에 대한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에 있는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합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7) 『訓民正音』〈鄭麟趾序〉,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子,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8) 『皇極經世書』〈纂圖指要〉下, "천지(天地)를 추리한 후에야 만물의 이치[理]가 밝아지고 음양(陰陽)의 심오한 이치를 찾은 후에야 만물의 수(數)를 볼 수 있다. (…) 성(聲)은 양(陽)이고 하늘에서 생겨난다. 음(音)은 음(陰)이고 땅에서 생겨난다. 이 성음(聲音)의 수(數)를 안 후에야 만물의 수를 볼 수 있다. 성음의 이치[理]를 안 후에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推之於天地而後萬物之理昭焉. 賾之於陰陽而後萬物之數覩焉. (…) 聲者陽也, 而生於天. 音者陰也, 而出乎地. 知聲音之數而後萬物之數覩矣. 知聲音之理而後萬物之理得矣)."

9) 코리아 스토리 기획위원회 편, 『한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 허원미디어, 2017, 12쪽.

2. 음양·오행·삼원의 체계와 의미

우주(宇宙)에서 '우(宇)'는 상하사방으로 이루어진 구조 공간을 말하고, '주(宙)'는 그러한 구조 공간 속에서 만물이 그 공간체의 운행 추이에 따라 변화 생성해 가면서 엮어 내는 시간의 지속성을 말한다. 공간을 뜻하는 '우' 자체가 이미 유한한 구조이므로 그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오직 궤도적 순환을 통해서만 영원할 수 있다.[10]

우주 만물과 자연을 관찰하는 동양의 기본적 사유 방법은 일본만수(一本萬殊)이다. 근본은 하나로서 같으나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모두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로써 온갖 가지를 다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모금의 적은 바닷물로도 바닷물 전체가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활관(豁觀)이다. 동양의 유기적 사유 방법은 질적(質的)이며 연역적(演繹的)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런 사유는 월인천강(月印川江)과 만법귀일(萬法歸一)과도 서로 통한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데 천 개의 강과 만 개의 호수에도 달이 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달은 모두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이치는 반드시 한 군데로 되돌아간다.

이런 동양적 사유의 체계로서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이 있다.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은 구체적 질료(質料)에서 점점 추상적 관념이 되었기에 그 상상에 가해지는 제약도 작았고 강한 해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물과 현상들이 이와 연관을 맺게 되었다.

1) 삼라만상의 음양 배속

성리학의 우주론에 있어서 리기(理氣)가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태극음양(太極陰陽)은 최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태극은 우주 최고의 본체이자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며, 음양은 속성이 상반된 두 가지 물질적 실체로서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보충하는 두 가지 기(氣)를 가리킨다.[11]

---

10)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32쪽.
11) 蒙培元 지음, 『理學範疇系統』, 홍원식 외 옮김,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124쪽.

음양은 본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소박한 개념이었다. 이 당시의 음양 관념은 해와 달, 낮과 밤처럼 서로 대응하고 있는 자연현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하늘과 땅, 불과 물, 수컷과 암컷 등등 세상은 온통 이렇게 대응하는 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음양은 점차 천지 사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성질의 기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전국시대(B.C.403~221)에 이르러 음양 관념은 점차 복잡해지고 자연적 속성에서 추상적 사유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음양(陰陽)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陰(그늘 음)과 陽(볕 양)은 모두 회의(會意) 문자이다. 陰자는 '그늘'이나 '응달', '음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陰자는 阜(阝:언덕 부)자와 今(이제 금)자, 云(구름 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금→음'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큰 언덕과 구름은 햇볕을 차단해 그늘을 만든다. 그래서 陰자는 그늘을 만들어 내던 구름과 언덕을 응용해 '그늘'을 표현했다.

陽자는 '양달'이나 '볕', '낮'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陽자는 阜(阝:언덕 부)자와 昜(볕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昜자는 햇볕이 제단 위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볕'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阜자까지 결합한 陽자는 태양이 제단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음양은 시간과 공간, 문화 등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우주 자연의 모습과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 해와 달, 불과 물 등은 음양의 모습이고, 상승과 하강, 밝음과 어둠, 팽창과 수축 등은 음양의 작용이다.

그러나 음양은 따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며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처럼 양이 존재하면 곧 음도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음양의 상대성·대대성). 음양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처럼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바탕 속에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한다(음양의 일원성·공존성). 음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낮과 밤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다(음양의

역동성·변화성).

삼라만상은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교감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양만으로는 (삼라만상을) 낳지 못하고, 홀로 있는 음만으로는 (삼라만상을) 성숙시킬 수 없으니 반드시 음양이 배합되어야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형통하게 된다.[12] 이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13]라는 『주역』「계사전」의 이치와도 상통한다.

음양은 흑백의 논리처럼 고정된 절대의 세계가 아니라 마주 보는 대상과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상화(相和)의 세계이다.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나 ◑가 아니라 ◒이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음이 지극하면 양이 되고(陰極陽生)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는(陽極陰生) 것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라는 『반야심경(般若心經)』의 핵심 구절도 음양의 근본 이치를 담고 있다. 색(色)은 유형(有形)의 만물로서 우주 만물이 드러나는 현상(現象)이고, 공(空)은 그 안에 존재하는 무형(無形)의 질서로서 우주 만물이 바탕을 두는 본체(本體)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허상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다.

형(形)과 상(象)은 음양의 속성이다. 형은 쓰임새[用]이고 상은 본체로서 짜임새[體]이다. 형은 외면에 나타난 모양으로 물질이고, 상은 그 형태 안에 존재하는 정신이다. 형을 잘 통찰하여야 상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추상(抽象)이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인 형(形)을 바라보고 그 안에 질서로 존재하는 상(象)을 파악해야 만이 우주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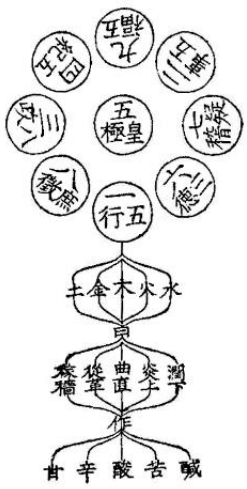
12) 蕭吉 지음, 『五行大義』, 김수길·윤상철 옮김, 『五行大義』, 대유학당, 1998, 32쪽, 〈起大衍論易動靜數〉, "皆由陰陽二氣, 鼓儛陶鑄, 互相交感. 故孤陽不能獨生, 單陰不能獨成, 必須配合, 以鑪冶爾, 乃萬物化通."

13) 『周易』「繫辭上傳」 5.

2) 우주 만물의 오행 상생과 상극

오행이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다섯[五] 가지 기운이 순환·운행[行]함을 말한다. 오행은 음양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관념으로서 물·불·나무·쇠·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5가지 기본물질인 오재(五材)를 의미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 이르러 소박했던 오행 관념도 점차 추상화되면서 많은 사물·현상들과 연관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에 관한 초기 문헌인 『상서(尙書)』〈주서(周書)·홍범(洪範)〉은 오행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범구주(洪範九疇)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아홉 가지 기본원리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행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1〉
홍범구주와 오행

오행의 첫째는 물(水)이고 둘째는 불(火)이고 셋째는 나무(木)이고 넷째는 쇠(金)이고 다섯째는 흙(土)이다. 물은 아래로 젖어들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나무는 휘고 곧으며, 쇠는 따르며 바뀌고, 흙은 기르고 거둔다. 아래로 젖어드는 것은 짠맛이 되고, 위로 타오르는 것은 쓴맛이 되고, 굽고 곧은 것은 신맛이 되고, 따르고 바뀌는 것은 매운맛이 되고, 기르고 거두는 것은 단맛이 된다.[14] 오행의 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木)은 나무와 봄, 발생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봄에 새싹이 땅을 뚫고 돋아나 위로 자라나면서 뻗어가는 것이고, 만물이 처음 발생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목은 태양을 향해 위로 자라면서(상승) 휘어지거나[曲] 곧게 나아간다[直]. 목은 인생으로는 소년기이고 계절로는 봄이며 하루로는 해가

14) 『尙書』〈周書·洪範〉, "初一 曰五行 (…)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뜨는 동쪽과 아침을 상징한다. 그래서 목은 꿈과 희망이 크고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만(전진) 한다.

화(火)는 불과 여름, 성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불타오르며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이고, 여름의 왕성한 기운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길러준다. 화는 열과 빛으로 뜨겁고 밝으며, 불꽃처럼 위로[上] 활활 타오른다[炎]. 화는 소년이 성장해서 열정적인 청년이 되듯이 잎과 꽃이 씩씩하게 성장하는 여름이고 태양이 높이 떠오르는 남쪽과 한낮을 상징한다. 그래서 화는 열기는 정열적이지만 인내심은 약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하다(☲).

토(土)는 땅과 흙이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사계절의 사이에 위치하여 발산하는 양기와 수렴하는 음기를 조절한다. 다른 오행을 두루 포용하고 중재하며 저장·보관한다. 흙 속에는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섞여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중화시키면서 어느 것과도 연관을 맺고 중간 역할을 한다. 토는 곡식을 심고[稼] 길러내서 거두는[穡] 대지·바탕이다. 인생으로는 중년기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토이기에 골고루 다 포용하고 조절하면서 중용을 이룬다.

금(金)은 쇠와 가을, 수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가을날 서늘한 기운이 내리면 밖으로만 향하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냉철하게 내면을 살펴서 결실을 맺는다. 차가우며 강건하여 단단하게 거두어서 결단하는 성분이다. 금은 거푸집을 따라[從] 고치고 형체를 바꿈[革]으로써 기물(器物)이 된다. 하루로는 저녁이고 인생으로는 장년기로서 활동성을 줄이면서 침착하게 숙고하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한다.

수(水)는 물과 겨울, 저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겨울 시냇물처럼 차가우나 봄을 기다리며 안으로 생명의 씨앗[核]을 잉태하고 있다. 액체이지만 환경에 따라 고체와 기체로도 변화하면서 그 형태를 바꾼다. 생명력의 핵심인 정기(精氣)를 응축해서 갈무리·저장하며, 만물을 적시면서[潤] 아래로[下] 흘러내려간다. 북쪽이면서 하루로는 밤이고 인생으로는 노년기로서 오랜 경륜이 쌓여서 지혜롭고 생각이 깊다.

돋아난 어린 새싹[木]이 성장하여 화려한 꽃[火]으로 변하고 암수가 수정

[土]되고 꽃이 지면 열매[金]가 맺고 생명력이 씨앗[水]으로 저장된다. 이처럼 오행은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이라는 생명의 순환과정도 함축하고 있다. 자연에서 생명은 씨앗과 모태로부터 태어나고(출생) 자라나서 무성해지며(성장) 열매를 맺으니 거두어서(수확) 다음 생명을 위해 갈무리되는(저장) 순환과정을 거친다.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은 발산하는 양(陽)의 작용이며, 거두어서 갈무리하는 것은 수렴하는 음(陰)의 작용이다.

봄은 목(木)이 운행하는 때로서 출생하고[生], 여름은 화(火)가 운행하는 때로서 성장하며[長], 가을은 금(金)이 운행하는 때로서 수확하고[收], 겨울은 수(水)가 운행하는 때로서 저장된다[藏]. 봄·여름은 상승하는 양기가 주동하며 가을·겨울은 하강하는 음기가 주동한다. 그런 가운데 음과 양을 조절·중개하는 과정으로서 토(土)가 운행하는 조화가 있다[化]. 이런 생장화수장의 운행과정을 거치면서 오행은 생명력이 순환되는 의미를 갖는다.

오행은 서로(相) 생(生)하고 극(剋)하면서 함께 순환하고 발전해나간다. 생은 낳아서 자라도록 해준다는 의미이고, 극은 함부로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의미인데,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는 단순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 상생과 상극은 '서로 상(相)'이 의미하는 것처럼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관계이다.

오행에서도 조화·균형이 중요하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하는 기운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침이 되며, 서로 통제하며 극하는 기운도 적절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이 자식을 올바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하늘과 땅, 사람의 천지인 삼원

본래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음양오행론은 전국 말기 추연(鄒衍, B.C.305?~240?)에 의해 자연주의 색채를 벗었으며, 이후 음양오행론이 점점 성행함에 따라 더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음양오행론의 외연적 확대 적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대(漢代) 초 동중서(董仲舒, B.C.179?~104?)부터이다. 그는 먼저 하늘에는 열 가지 단서가 있는

데 천(天)·지(地)·음(陰)·양(陽)·화(火·금(金)·목(木)·수(水)·토(土)·인(人)이라고 하였다.[15] 이는 곧 천지인 삼원(三元)과 음양(陰陽)·오행(五行)이다. 이 과정에서 천지자연과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상감(相感)·상응(相應)한다고 인식되었다.

'우주 안에 벌여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삼라만상(森羅萬象)'이라고 한다. '삼(森)'을 '參'(석 삼)으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이루는 세 가지 근본'인 '삼원(三元)'을 말한다. 하늘과 땅, 사람의 천지인(天地人) 삼원에 펼쳐져 있는 만상으로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도(道)라는 것은 위로는 천문(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地理)를 알며 가운데로는 인사(人事)를 아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16]

『주역(周易)』에서도 "역(易)의 글이 (세상 이치를) 넓고 크게 다 갖추어서 천도(天道)가 있고, 인도(人道)가 있으며, 지도(地道)가 있으니 삼재를 겸해서 둘로 한다. 그러므로 여섯이니, 여섯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재의 도이다."[17]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질서의 연관 구조를 천지인 삼원으로 설명한다. 옛 성인이 성명(性命)의 이치에 순응하여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를 수립하였고, 이 삼재지도(三才之道)를 그 두 구성요소[陰·陽·柔·剛·仁·義]로 각각 구분해서 여섯 효[六爻]를 갖춰야만 비로소 역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도가(道家)사상에도 삼원론적 존재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태평경』에서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인 '하늘·땅·사람'을 '삼통(三統)'이라 한다. 삼통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곧 천기(天氣)·지기(地氣)·중화기(中和氣)의 세 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합하여 통하는 삼합상통(三合相通) 경지를 '태평(太平)'이라 한다. 삼합상통은 천지자연과 인간, 곧 우주 만물이 동일한 근본을 가지며 서로 기를 통하며 응한다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보여준다.[18] 천·지·인이라는 우주 대자연의 본래 구조와 정·기·신이라는 소우주

15) 『春秋繁露』〈官制象天〉, "天有十端, 十端而止矣. 天爲一端, 地爲一端, 陰爲一端, 陽爲一端, 火爲一端, 金爲一端, 木爲一端, 水爲一端, 土爲一端, 人爲一端, 凡十端, 而畢天之數也."
16) 『黃帝內經素問』〈氣交變大論〉, "夫道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17) 『周易』「繫辭下傳」 10,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地道焉, 有人道焉. 兼三材而兩之, 故六, 六者, 非它也, 三才之道也."
18)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126쪽 참고.

의 구성요소는 서로 결합하는데, 인간은 정·기·신이라는 세 가지의 기운이 상화(相和)하는 삼합상통한 존재이다.

> 세 기가 하나로 함께 하면 신묘한 근본이 된다. 하나는 정(精)이 되고, 하나는 신(神)이 되고, 하나는 기(氣)가 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자리를 함께하는데 본래 하늘·땅·사람의 기이다. 신은 하늘[天]로부터 받고, 정은 땅[地]으로부터 받고, 기는 중화(中和)로부터 받는 것인데 서로 함께 하여 하나의 온전한 도가 된다.[19]

『태평경』의 삼원론과 비슷한 개념이 한국의 『천부경(天符經)』에도 나온다. 『천부경』은 비록 위서(僞書)의 논란이 있지만 한국 선도(仙道)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여겨진다. 『천부경』의 '하나를 셋으로 나눈다'는 '일석삼극(一析三極)'은 우주 만물의 근원적 본체이자 원리인 '一'이 우주의 기본 구성요소인 삼원의 '天·地·人'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경』의 '一→三→만물' 생성방식은 『주역』의 '一→二→四→八→만물'이나 『노자』의 '道→一→二→三→萬物' 생성방식보다 더 명확하게 삼원론을 전개한다.[20]

천지인 삼원의 세계 구조는 자연에 해당하는 천(天)·지(地)라는 상응 구조와 인(人)의 중매자 역할을 통해 변증법적 특성을 지닌다. 천지인 삼원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하늘(양기)과 땅(음기)의 교류에 의해 생겨나지만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런 삼원 세계관은 사람 명운(命運)의 길흉을 판단하는 명리학에도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간지(干支)를 통해 반영되었다. 천(天)은 원기를 구성하는 음양과 오행의 결합을 나타내는 천간, 지(地)는 12신(辰)의 방위와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지, 인(人)은 천간과 지지를 함께 조화시키는, 지지(支)에 소장(藏)되어있는 천간(干)이라는 의미의 지장간(支藏干)으로 표현된다.

---

19) 『太平經合校』 154~170, "三氣共一, 爲神根也. 一爲精, 一爲神, 一爲氣. 此三者, 共一位也, 本天地人之氣. 神者受之於天, 精者受之於地, 氣者受之於中和, 相與共爲一道."

20)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 250쪽.

3. 한글 자음의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글자는 말을 글로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이다. 사용하는 말을 표시할 수 있는 적당한 글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한글은 뜻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고 우리말의 소리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소리글자이다. 우리말의 구조와 음운 체계에 알맞은 글자를 마련해야겠다는 인식의 그 바탕에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 사상과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한글은 소리의 단위인 음절(音節)[21]을 24개의 자음과 모음의 기호[22]만으로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음소(音素)[23]문자이다. 그래서 먼저 한글 자음에 담긴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양오행론은 동양 전통사회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계했던 중요한 이론 체계의 하나이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단순한 설명 수단을 넘어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이해 체계의 하나였다. 음양오행론의 중심 대상은 역시 자연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양과 오행이 음지와 양지, 물·불·나무·쇠·흙을 가리키는 등 본래 자연(물)에 대한 단순한 지시어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을 넘어 인간·역사로 대상 영역을 확장하고, 자연과 인간·역사를 긴밀히 결합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큰 특징이 있다.[24]

한글 자음의 기본자(ㄱ·ㄴ·ㅁ·ㅅ·ㅇ)는 각기 그 발음작용이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나머지 자음들은 가획자(加劃字)로서 소리가 조금 더 세게 나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25] 이체자 ㄹ은 혀의 모

---

21) 음절(syllable): 발음상 또는 청각상으로 독립되어 나타나는 음운론적 단위. '어머니를 만나겠다'라는 발화는 '어' '머' '니' '를' '만' '나' '겠' '다'라는 8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22) 자음기호 14개(ㄱㅋㄴㄷㅌㄹㅁㅂㅍㅅㅈㅊㅇㅎ)와 모음기호 10개(ㅏㅓㅗㅜㅡㅣㅑㅕㅛㅠ)이다.

23) 음소(phoneme):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언어음의 최소 단위. '어머니를 만나겠다'에서 '어머니' '를' '만나' '겠' '다'는 각각 모두 음소이다.

24) 한국사상연구회,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9, 293쪽.

25) 김만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65쪽.

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내는 소리는 모두 오행에 근본이 있으므로 사계절 및 오음(궁상각치우)과도 합치된다고 하였다.

> 어금닛소리(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혓소리(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순음) 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치음) ㅅ은 이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소리(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조금 더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ㅅ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ㆆ, ㆆ에서 ㅎ으로 그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뜻도 모두 같다. (…) 무릇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에 근본을 두는 것이므로 사계절과 합하여도 벗어남이 없고, 오음과 맞추어도 어그러지지 않는다.[26]

자음은 '닿소리'라고도 하는데 닿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그 숨이 입안 어딘가에 닿으면서 만들어진 소리라는 뜻이다. 자음 기본자의 상형 원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27]

〈표 1〉 자음 기본자의 상형

기본자	소리	상형 원리	비고
ㄱ	어금닛소리(아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象舌根閉喉之形]	발음작용 상형
ㄴ	혓소리(설음)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象舌附上齶之形]	
ㅁ	입술소리(순음)	입 모양[象口形]	발음기관 상형
ㅅ	잇소리(치음)	이 모양[象齒形]	
ㅇ	목구멍소리(후음)	목구멍 모양[象喉形]	

26) 『訓民正音解例』〈制字解〉,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齶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ㆆ ㆆ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 (…)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27) 김만태, 앞의 글, 2012, 66쪽.



〈그림 2〉 자음 상형도

(출처: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10+9』,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쪽)

발음기관인 목구멍·어금니·혀·이·입술의 각 생태적 특징들을 해당 오행에 각각 연관시키고, 그 소리의 특징들도 각 오행의 모습에 비유하였다.[28] 그리고 이것들을 각 계절과 오음 등에 배정하였다.

> 목구멍[喉]은 입의 안쪽에 깊이 있고 물기에 젖어 있으므로 오행으로는 물(水)이다. 그 소리가 공허하고 잘 통하는 것은 물이 형태가 없고 맑아(허명) 흘러 통하는 것과 같다. 계절은 겨울이 되고 소리는 우(羽)음이다. 어금니[牙]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木)이다. 그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지만 목구멍소리보다 더 실하므로 나무가 물에서 생기지만 나무는 실질적 형태를 지니는 것과 같다. 계절은 봄이 되고 소리는 각(角)음이다. 혀[舌]는 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火)이다. 그 소리는 구르고 날리므로 불이 잘 번지고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것과 같다. 계절은 여름이 되고 소리는 치(徵)음이다. 이빨[齒]은 단단하여 다른 물질을 끊을 수 있으므로 오행으로는 쇠(金)이다. 그 소리는 부수고 막히므로 마치 쇠가 부스러지고 제련되는 것과 같다. 계절은 가을이 되고 소리는 상(商)음이다. 입술[脣]은 모나고, 위아래 입술이 합해지니 오행으로는 흙(土)이다. 그 소리는 속으로 머금고 넓으므로 마치 땅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큰 것과 같다. 계절은 늦여름이 되고 소리는 궁(宮)음이다.[29]

---

28) 위의 글.

29) 『訓民正音解例』〈制字解〉,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脣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즉, 목구멍은 깊고 젖어 있으니 물이며 그 소리가 공허하고 유통하는 것과 같으므로 겨울에 해당하는 소리이다(ㅇㅎ).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쭉하니 나무가 굽어지고 길어지며 싹을 틔우는 봄에 해당하는 소리이다(ㄱㅋ).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불이며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여름에 해당하는 소리이다(ㄴㄷㅌ). 이는 단단하고 자르니 쇠이며 잘라내어 마무리하는 가을에 해당하는 소리이다(ㅅㅈㅊ).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그 소리가 흙이 만물을 품어 간직하고 넓고 큰 것과 같으므로 늦여름에 해당하는 소리이다(ㅁㅂㅍ).

따라서 어금닛소리인 'ㄱㅋ'은 목(木), 혓소리인 'ㄴㄷㅌ·ㄹ(반설음)'은 화(火), 입술소리인 'ㅁㅂㅍ'은 토(土), 잇소리인 'ㅅㅈㅊ'은 금(金), 목구멍소리인 'ㅇㅎ'은 수(水)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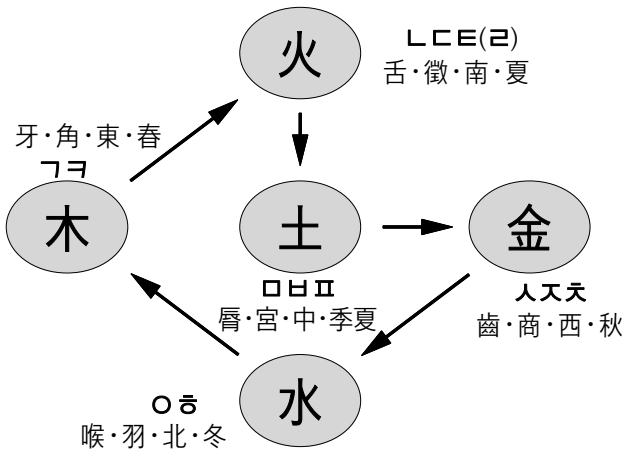
〈표 2〉 자음의 역리적 분류

소리 / 구분	목구멍소리 (후음)	어금닛소리 (아음)	혓소리 (설음)	잇소리 (치음)	입술소리 (순음)
초성	ㅇㅎ	ㄱㅋ	ㄴㄷㅌ(ㄹ)	ㅅㅈㅊ	ㅁㅂㅍ
발음기관	목구멍	어금니	혀	이	입술
발음기관 특징	깊고 윤택함	어긋나고 긺	재빠르게 움직임	단단하고 자름	모나고 합해짐
소리 특징	공허하고 통함	야무지고 실함	구르고 날림	부스러지고 걸림	머금고 넓음
오행	물(水)	나무(木)	불(火)	쇠(金)	흙(土)
오성	우	각	치	상	궁
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늦여름
방위	북	동	남	서	일정한 위치 없음

30) 김만태, 앞의 글, 2012, 67쪽.

사람의 소리 역시 오행에 근본이 있으므로 자음은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즉 목화토금수의 오행 상생(相生) 순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자음 기본자의 상형 원리를 설명하면서는 '아설순치후' 오행 상생의 순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발음기관의 위치에 따라서는 가장 안쪽 목구멍에서부터 가장 바깥쪽 입술로 설명했다. 그래서 자음 17자의 발음기관을 중심으로 역리적 분류를 하면서는 '후아설치순'의 순으로 설명했다.[31] 그리고 각 자음에 동서남북·중앙(일정한 방위 없음)의 방위도 함께 배속하였다.

>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이므로 목구멍소리는 북쪽, 어금닛소리는 동쪽이 된다. 혀와 이가 또한 그 다음이므로 혓소리는 남쪽, 잇소리는 서쪽이 된다. 입술은 끝에 있으므로 흙은 일정한 위치가 없고 사계절에 붙어 왕성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즉 초성 가운데 스스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32]



〈그림 3〉 자음과 오행의 상생 관계도

31) 위의 글, 67~68쪽.

32) 『訓民正音解例』〈制字解〉,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舌齒又次之, 南西之位也. 脣居末,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오행상 토(土)에 해당하는 ㅁㅂㅍ의 순음(입술소리)을 늦여름인 '계하(季夏)'에 배정했다가 '흙(土)은 일정한 위치가 없고 사계절에 붙어 왕성하다'는 뜻으로 바꿨는데,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흙의 기운은 정해진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역가(曆家)는 네 계절 (마지막) 달의 18일을 흙의 기운으로 삼아서 72일(4×18일)을 (흙의 기운에) 배당한다."[33]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34]

제자해에 따른 자음의 순서는 ㄱ→ㅋ(어금닛소리), ㄴ→ㄷ→ㅌ(혓소리), ㅁ→ㅂ→ㅍ(입술소리), ㅅ→ㅈ→ㅊ(잇소리), ㅇ→ㆆ(목구멍소리)이다. 그리고 오행상 목(木)인 어금닛소리 ㄱ의 가획자인 ㅋ·ㄲ와 관련해서는 나무의 자연 성장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였다.

> ㄱ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ㅋ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란 것이요, ㄲ은 나무가 나이 들어 굳세게 된 것이므로 여기까지 모두 (오행상 목인) 어금니에서 본뜬 것이다.[35]

이처럼 같은 종류의 소리를 내는 기호들은 하나의 같은 기호를 공유하는 훈민정음은 자질문자(資質文字, feature system)이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는 먼저 발음작용과 소리가 나오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다섯 기본자(ㄱ·ㄴ·ㅁ·ㅅ·ㅇ)에 소리가 거세지는 음성적 특징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획을 더한 것이다. 이리하여 초성 17자 중 14자를 만들었으며, 이체자 3자(ㆁㄹㅿ)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졌다.[36] 이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서 소리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37]

---

33) 『朱子語類』〈理氣〉上, "土無定位, 故今曆家以四季之月十八日爲土, 分得七十二日."

34) 늦여름(季夏)은 사계절을 오행에 근거하여 굳이 다섯으로 구분하기 위한 관념의 소산으로 생각되는데, 1년 중 계하의 계절적 시기 배당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즉, 여름과 가을 사이 무더운 한여름의 시기로 해석하는 경우와 사계절 각각이 다음 계절로 바뀌는 사이의 환절기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權依經·李民聽 지음, 『五運六氣詳解與運用』, 김은하·권영규 옮김, 『오운육기학 해설』, 법인문화사, 2000, 66쪽.

35) 『訓民正音解例』〈制字解〉,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ㄲ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36) 『訓民正音解例』〈制字解〉, "그 소리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뜻은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ㆁ은 다르다. 반혓소리 ㄹ과 반잇소리 ㅿ도 혀나 이의 모양을 본뜨긴 했으나 그 체(體, 바탕으로 삼은 기본 글자, ㄴ·ㅅ)를 달리하여 획을 더한 뜻은 없다(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ㆁ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즉,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音素)기호 뿐 아니라 공유(共有)기호도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자음 각 계열의 음성적 특징인 음성자질(音聲資質)을 인식하고 이를 글자의 모양에 반영했다고 하여 훈민정음을 자질문자라고 부른다.[38] 자음의 기본 글자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혓소리·입술소리·목구멍소리는 불청불탁(不淸不濁)인 ㄴ·ㅁ·ㅇ을 기본으로 정했으면서[39] 어금닛소리와 잇소리는 전청(全淸)인 ㄱ·ㅅ을 기본으로 삼았던 까닭도 음성적 특징 외에 형태적 특징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 자음은 음양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 자음자 ㄱㄴㅁㅅㅇ은 '부드럽고(柔) 머무는(靜)'의 성향이 강하므로 음(陰)으로, 가획자는 '굳세고(剛) 움직이는(動)' 성향이 강하므로 양(陽)으로 볼 수 있다. 가획자 중에서도 ㅋㅌㅍㅊㅎ은 양의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40] 그러므로 기본 자음과 가획 자음을 구별해서 사용함으로써도 음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본다.

4. 한글 모음의 음양 배속, 오행 상생과 천지인 삼원

모음은 '홀소리'라고도 하는데 홀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입안 어디에도 닿지 않고 혼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다.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땅·사람' 삼재(三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은 하늘을 본떠 둥글게 하고, 'ㅡ'은 땅을 본떠 평평하게 하고, 'ㅣ'은 사람을 본뜨되 그 서있는 모양으로 하여 천지인 삼원(三元)의 이치를 갖추었다.

'•'는 하늘의 성정을 닮아 천(天)으로서 양이며, 'ㅡ'는 땅의 덕성을 닮아 지(地)로서 음이며, 'ㅣ'는 하늘과 땅이 화합한 사람으로서 인(人)이며 음양을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ㅡㅣ'의 생성은 천지가 개벽하고 인간이 출현하는

37) 김다은, 『훈민정음의 비밀』, 생각의나무, 2008, 353~354쪽 참조.
38) 김만태, 앞의 글, 2012, 70쪽.
39) 『訓民正音解例』〈制字解〉, "ㄴ·ㅁ·ㅇ은 그 소리가 가장 거세지 않은 까닭으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불청불탁이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들을 시초로 삼았다(ㄴㅁㅇ其聲最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40) 김만태, 「모자음오행(母子音五行)의 성명학적 적용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9, 87~88쪽.

천개(天開)·지벽(地闢)·인생(人生)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순서를 십이지(十二支)에 비겨 '•'는 자(子), 'ㅡ'는 축(丑), 'ㅣ'는 인(寅)에 연관시켰다. 모음 기본자의 제자(制字)에 관한 역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41]

〈표 3〉 모음 기본자의 상형

기본자	소리 특징	의미	상형	음양	삼원
·	혀가 움츠러들고 깊음	하늘이 자(子)에서 열림[天開]	하늘의 둥근 모양	양	천
ㅡ	혀가 조금 움츠러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음	땅이 축(丑)에서 펴짐[地闢]	땅의 평평한 모양	음	지
ㅣ	혀가 움츠러들지 않고 얕음	사람이 인(寅)에서 생김[人生]	사람의 서 있는 모양	음양	인

모음자의 생성원리를 '태극(太極)→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의 과정으로 본다면 초출자(初出字) 'ㅗㅏㅜㅓ'는 사상에 해당하고, 재출자(再出字) 'ㅛㅑ ㅠㅕ'는 팔괘에 해당한다. 초출자와 재출자의 제자 기준과 그 역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42]

〈표 4〉 모음 초출자(初出字)의 역학적 의미

초출자	제자 기준 (字形)	의의	처음 나옴 (音聲)	처음 생김 (字形)
ㅗ	· +ㅡ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귐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 처음으로 나온 것(初出)	하나가 동그란 것(·)은 처음으로 생겨난 뜻 (初生)
ㅏ	ㅣ+ ·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룸		
ㅜ	ㅡ+ ·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귐		
ㅓ	· +ㅣ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룸		

41) 김만태, 앞의 글, 2012, 72쪽.
42) 위의 글, 72~73쪽.

〈표 5〉 모음 재출자(再出字)의 역학적 의미

재출자	제자 기준 (音聲)	의의	거듭 나옴 (音聲)	거듭 생김 (字形)
ㅛ	ㅣ⇒ㅗ	사람(ㅣ)을 겸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음양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	ㅣ에서 시작되어 사람(ㅣ)을 겸하므로 거듭해서 나온 것(再出)	둘이 동그란 것(·)은 거듭해서 생겨난 뜻 (再生)
ㅑ	ㅣ⇒ㅏ			
ㅠ	ㅣ⇒ㅜ			
ㅕ	ㅣ⇒ㅓ			

이 여덟 글자에 하늘과 양을 상징하는 '●'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양이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르는 것과 같은[43] 의미이다. 그리고 (중성을 만듦에 있어) 하늘·땅·사람을 본뜸으로써 삼원의 이치[道]를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삼원이 만물의 먼저가 되되 하늘이 삼원의 처음이 된다. 이것은 '●ㅡㅣ' 세 자가 여덟 소리[글자]의 머리가 되되 '●'이 세 자의 으뜸이 되는 것[44]과 같다.

모음의 음양 배속과 관련하여 'ㅗㅏㅛㅑ'의 동그라미(●)가 위와 밖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생겨나 양(陽)이 되기 때문이다. 'ㅜㅓㅠㅕ'의 동그라미(●)가 아래와 안에 있는 것은 땅에서 생겨나 음(陰)이 되기 때문이다.[45]

천지인 삼원의 기본자를 음과 양으로 배속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시 선의 위쪽 또는 바깥쪽에 있는 점은 양으로, 아래쪽 또는 안쪽에 있는 점은 음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짜임새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46]

오행상 물(ㅗㅠ)과 불(ㅜㅛ)은 아직 기(氣)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입술이) 닫힌다(모아진다). 나무(ㅏㅕ)와 쇠(ㅓㅑ)는 음과 양이 (만물의) 바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이) 열린다(펴진다).[47] 그러므로 "모음 가운데도 스스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

43) 『訓民正音解例』〈制字解〉, "·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44) 『訓民正音解例』〈制字解〉,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然三才爲萬物之先, 而天又爲三才之始. 猶·ㅡㅣ三字爲八聲之首, 而·又爲三字之冠也."
45) 『訓民正音解例』〈制字解〉, "ㅗㅏㅛㅑ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ㅜㅓㅠㅕ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
46) 최경봉·시정곤·박영준, 앞의 책, 224쪽.
47) 『訓民正音解例』〈制字解〉, "水火未離乎氣, 陰陽交合之初, 故闔. 木金陰陽之定質, 故闢."

가 있다."[48]고 하는 것이다. 모음 11자에 대한 역학적 의미를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49]

〈표 6〉 모음의 역리적 분류

중성	수	음양	오행	방위	천지수	생위/성수
ㅗ	1	양	수	북	天一	生水之位
ㅜ	2	음	화	남	地二	生火之位
ㅏ	3	양	목	동	天三	生木之位
ㅓ	4	음	금	서	地四	生金之位
ㆍ	5	양	토	중	天五	生土之位
ㅠ	6	음	수	북	地六	成水之數
ㅛ	7	양	화	남	天七	成火之數
ㅕ	8	음	목	동	地八	成木之數
ㅑ	9	양	금	서	天九	成金之數
ㅡ	10	음	토	중	地十	成土之數
ㅣ	無數	중성	無行	無位	無天地數	無位數

ㅗ가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천수(天數)로 1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ㅏ가 그 다음으로 나니 천수로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ㅜ가 첫째로 땅에서 나니 지수(地數)로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ㅓ가 그 다음으로 나니 지수로 4이고 쇠를 낳는 자리다. ㅛ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천수로 7이고 불을 이루는 수이다. ㅑ가 그 다음으로 나니 천수로 9이고 쇠를 이루는 수이다. ㅠ가 두 번째로 땅에서 나니 지수로 6이고 물을 이루는 수이다. ㅕ가 그 다음으로 나니 지수로 8이고 나무를 이루는 수이다. (…) ㆍ는 천수로 5이고 흙을 낳는 자리다. ㅡ는 지수로 10이고 흙을 이

48) 『訓民正音解例』〈制字解〉,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49) 김만태, 앞의 글, 2012, 73~74쪽.

> 루는 수이다. ㅣ만이 자리나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이란 무극(無極)의 참[眞]과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의 정(精)이 미묘하게 어울리고 엉기어서 진실로 정위(定位)와 성수(成數)로는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50]

1에서 10까지의 수를 천수(天數)와 지수(地數)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주역』「계사전」에서 비롯된다. 1·2·3·4·5는 안에 있으면서 만물의 생명을 낳는다하여 생수(生數)라 하고, 6·7·8·9·10은 밖에 있으면서 만물의 형체를 이룬다하여 성수(成數)라 한다. 성수는 생수에 각기 5(중궁의 생수)를 더하여 얻는 것으로서, 생수는 성수를 낳는 체(體)가 된다. 천지수를 모두 합하면 55의 대연수(大衍數)가 나온다.[51]

> 천1, 지2, 천3. 지4, 천5. 지6, 천7, 지8, 천9, 지10이니 천수가 5개이고 지수가 5개이다. 5위가 서로 얻으며 각각 합함이 있으니 천수가 25이고 지수가 30이다. 천지의 수가 모두 55이니 이것으로써 변화를 이루며 신묘한 작용을 행한다.[52]

지금까지 살펴본 모음[중성]에 관한 역학적 의미를 오행 상생(相生)을 기반으로 하는 선천하도(先天河圖)에 비추어 도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2, 그림 3)[53]. 이처럼 모음을 하도에 맞추어 배열한 도상은 이미 이정호[54]·유정기[55]·유승국[56]·이성구[57]의 논저에도 나와 있다.

---

50) 『訓民正音解例』〈制字解〉, "ㅗ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 ㅏ次之, 天三生木之位也. ㅜ初生於地, 地二生火之位也. ㅓ次之, 地四生金之位也. ㅛ再生於天, 天七成火之數也. ㅑ次之, 天九成金之數也. ㅠ再生於地, 地六成水之數也. ㅕ次之, 地八成木之數也. (…) ·天五生土之位也. ㅡ地十成土之數也. ㅣ獨無位數者, 蓋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51) 김만태, 앞의 글, 2012, 75쪽.

52) 『周易』「繫辭上傳」9,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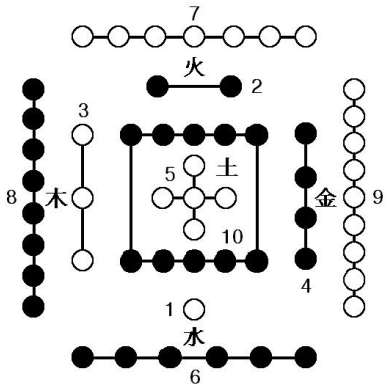
53) 3장에서 살펴본 〈그림 3〉 '자음과 오행의 상생 관계도'도 좌선(左旋)하는 하도에 비추어 그린 것이다.

54)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78,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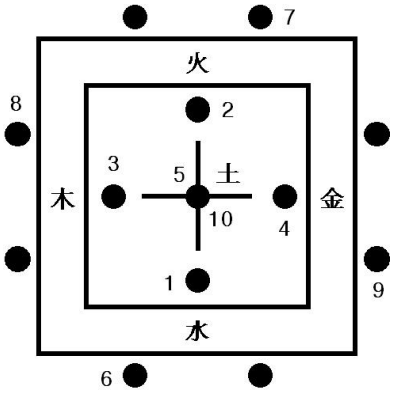
55) 유정기, 『국학문제논집』, 상지사, 1979, 321쪽.

56) 유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194쪽.

그러나 중앙 5·10 토(土)의 기본자 '•ㅡㅣ'의 배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정호와 유승국은 세 글자를 모두 합해서 十자형을 이루고, 유정기는 'ㅡㅣ'는 없이 '•'만 있고, 이성구는 'ㅣ'는 없이 '•ㅡ'만 나타내고 있다.[58]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떴으며 삼원에서 인(人)을 의미하는 'ㅣ'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음양과 오행을 두루 겸비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음과 달리 그 음양과 오행, 방위와 수를 고정시켜 논할 수 없다(ㅣ獨無位數者)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논리는 이성구의 도상이 따른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 '•'를 제외하면 10자이므로 2(음양)×5(오행)=10의 논리에 따라 'ㅣ'를 무행(無行)이 아니라 토행(土行)으로 배속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는 한글 자모음의 음양오행과 천간(天干)·지지(地支)의 배속 관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59]



〈그림 4〉 선천 하도의 수리와 오행



〈그림 5〉 중성 모음의 음양과 오행

57) 이성구, 『훈민정음연구』, 동문사, 1985, 99쪽.
58) 김만태, 앞의 글, 2012, 75쪽.
59) 김만태,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의거한 모자음(母子音)오행성명학의 실증사례 분석」, 『민족사상』 14(3),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261쪽.

〈표 7〉 천간지지와 한글 자모음의 음양오행 배속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음양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	寅	卯	巳	午	辰戌	丑未	申	酉	亥	子
자음	ㅋ	ㄱ	ㅌ	ㄷ, ㄹ	ㄴ	ㅍ	ㅂ	ㅁ	ㅊ	ㅈ	ㅅ	ㅎ	ㅇ
모음	ㅏ	ㅓ	ㅛ	ㅜ	ㅣ	ㅡ	ㅑ	ㅕ	ㅗ	ㅠ

5. 한글 합자의 천지인 삼원

『훈민정음』은 서양보다 몇백 년 전에 음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서 글자를 조합하는 법을 설명했다. 『훈민정음』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합하여 완전한 하나의 글자[음절]가 이루는 것을 천지인 삼원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훈민정음 체계의 뛰어난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이 가능하지만 성운학의 이분법적인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어 중성과 종성을 분리 인식한 것이 가장 탁월했다고 판단된다. 한 음절을 세 부분으로 분석하여 중성을 새로 설정하고 중성이 음절의 핵심임을 파악한 것인데 15세기의 발달한 국어 음운이론을 가장 잘 보여준다.[60]

가운데소리(중성)는 첫소리(초성)가 생겨나는 것에 이어 끝소리(종성)가 완성되도록 하니 사람의 일이다. 한 음절의 핵심은 가운데소리에 있는 바, 첫소리와 끝소리는 가운데소리와 결합하여 음(音)을 완성한다. 이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의 가치를 완전히 알려면 사람이 비로소 이 만물을 돌보고 힘써야만 한다.[61] 이것이 바로 천지인 삼원의 이치이다.

60) 백두현·이미향·안미애,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2013, 147쪽.
61) 알브레히트 후베, 『알기 쉬운 날개를 편 한글』, 박이정, 2021, 43쪽.

초성은 발동하는[動] 뜻이 있으니 하늘[天]의 일이고, 종성은 그치는[靜] 뜻이 있으니 땅[地]의 일이고, 중성은 초성의 생겨남을 이어받아 종성의 이룸을 연결해주니[動靜] 사람[人]의 일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62]

〈표 8〉 초중종성의 역학적 의미

소리	삼원	동정 (動靜)	일	의의	오행 작용
초성	천	동	하늘 일	움직여 발동함	신의 운행 (정신의 움직임)
중성	인	동정	사람 일	초성의 생김을 잇고 종성의 이룸을 연결	인의예지신-신의 운행 간심비폐신-바탕의 이룸
종성	지	정	땅의 일	그치고 정해짐	바탕의 이룸 (물질의 이룸)

사람은 움직이는 동(動)과 그치는 정(靜)을 겸하고 있고 하늘과 땅의 작용을 이어주고 있다. 이는 중성 모음이 중심이 되어서 초성과 종성의 자음과 서로 화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형성한다는 훈민정음 합자(合字)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63]

C - V (- C)

〈그림 6〉 한글의 기본 음절 구조(C: consonant 자음, V: vocal 모음)
(출처: 알브레히트 후베, 앞의 책, 43쪽)

>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서로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이란 하늘[초성]이요, 정이란 땅[종성]이며, 동과 정을 겸하는 것은 사람[중성]이다.[64]

62) 김만태, 앞의 글, 2012, 77쪽.
63) 위의 글, 77~78쪽.

중성이 깊고 얕음[深淺]과 열림과 닫힘[闢闔]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아설순치후) 오음의 청탁으로 뒤에서 화합하여(중성을 중심으로 서로 결합하여) 음절의 첫소리[초성]가 되기도 하고 끝소리[종성]가 되기도 하니, 만물이 땅에서 처음 나서 다시 땅으로 되돌아감을 알 수 있다.[65]

그리고 글자[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이 (중성과) 어울러서 글자를 이루는데,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뤄도 그 마름해서 이루고 보필해서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입음과 같다.[66]

태초의 원기(元氣)가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는 까닭에 (원형이정의 이치에 따라)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67]

중성모음이 중심이 되어서 초성·종성의 자음과 화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완성한다는 천지인 삼원의 합자 의미와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 음향적 에너지 등을 고려해볼 때 당연히 모음이 자음보다 중시되므로 소리오행에서는 '모자음(母子音)'으로 지칭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된다. 다만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그대로 '자모음(子母音)'으로 지칭한다.[6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의 각 글자들을 음양오행으로 배속해보면 〈그림 7〉과 〈표 9〉의 예시와 같다.

---

64) 『訓民正音解例』〈制字解〉,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互動靜者, 人也."

65) 『訓民正音解例』〈制字解〉,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淸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復歸於地也."

66) 『訓民正音解例』〈制字解〉,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67) 『訓民正音解例』〈制字解〉, "一元之氣, 周流不窮, 四時之運, 循環無端, 故貞而復元, 冬而復春. 初聲之復爲終, 終聲之復爲初, 亦此義也."

68) 김만태, 앞의 글, 2019, 86쪽.



〈그림 7〉 한글의 음양오행 배속 사례

〈표 9〉 한글 자모음의 오행 예시

가	각	간	갈	감	강	개	거	건	걸	검	격	견
목목	목목목	목목화	목목화	목목토	목목수	목목토	목금	목금화	목금화	목금토	목목목	목목화
나	낙	난	남	낭	녀	년	념	녕	노	농	능	니
화목	화목목	화목화	화목토	화목수	화목	화목화	화목토	화목수	화수	화수수	화토수	화토
다	단	담	당	대	도	독	돈	동	두	둔	둘	득
화목	화목화	화목토	화목수	화목	화수	화수목	화수화	화수수	화화	화화화	화화화	화토목
라	락	란	람	랑	량	려	력	련	렬	렴	렵	령
화목	화목목	화목화	화목토	화목수	화금수	화목	화목목	화목화	화목화	화목토	화목토	화목수
마	막	만	말	망	멱	면	명	모	목	몽	바	박
토목	토목목	토목화	토목화	토목수	토목목	토목화	토목수	토수	토수목	토수수	토목	토목목
사	삭	산	살	삼	새	자	작	잔	잠	차	찬	창
금목	금목목	금목화	금목화	금목토	금목토	금목	금목목	금목화	금목토	금목	금목화	금목수
아	악	안	알	암	앙	하	학	한	함	합	항	해
수목	수목목	수목화	수목화	수목토	수목수	수목	수목목	수목화	수목토	수목토	수목수	수목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자음과 모음, 합자의 음절에 담긴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

음과 모음, 합자 등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여 한글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래에 사람이 타고난 음양오행을 사주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후 이에 맞춰 이름을 짓는 경향이 많다.[69]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95% 수준으로, 사실상 모든 개명 신청을 허가해주는 정도에 이르렀다.[70] 이렇게 이름을 짓거나 바꾸는 경우 단지 부르기 쉽고 듣기 좋고 의미만 좋거나, 유행하는 세련된 이름을 짓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글의 각 음절이 함축하고 있는 음양오행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선천적인 음양오행을 보완하는 좋은 이름을 짓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과 얼개에 존재하고 있는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합자에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5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문자를 갖고 있는 언어는 1백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짐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가 생긴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철학적 사유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의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라는 음양이 번갈아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순환하는 오행 운동이 만들어진다. 음양오행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과 사유의 틀이다. 천지인 삼원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하늘[양기]과 땅[음기]의 교류에 의해 생겨나지만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변증법적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인간이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하다. 따라서 인간

69) 〈SBS 뉴스〉, 2014.05.25., "가장 인기있는 신생아 이름은?…대법, 가족관계통계 공개"
70) 『조선일보』, 2021.09.17., "성형하듯 개명하는 사람들… 2010년부터 10년간 146만명 이름 바꿔"

을 소우주(小宇宙, Mikrokosmos)라고 한다.

『훈민정음해례』〈제자해〉에 의하면 한글이 만들어진 이치는 바로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원이다. 천지만물의 이치는 오직 음양과 오행인데, 사람도 천지자연 사이에 존재하므로 말소리, 즉 성음(聲音)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말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글자를 만들 때는 말소리에 담긴 이치를 따르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를 태극과 음양, 천지인 삼원, 오행 등의 역학적 이치로 설명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음에 담긴 음양 배속과 오행 상생, 한글 모음에 담긴 음양 배속, 오행 상생과 천지인 삼원, 한글 합자의 음절에 담긴 천지인 삼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한글이 만들어진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사상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합자 등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여 한글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5월부터 대법원에서 신생아 이름과 개명한 이름을 매달 통계해서 발표할 정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타고난 음양오행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단지 부르기 쉽고 듣기 좋고 의미만 좋은 이름을 짓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글의 자모음과 음절이 담고 있는 음양오행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선천적인 음양오행을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사료

『尙書』, 『周易』, 『朱子語類』, 『春秋繁露』, 『太平經合校』, 『皇極經世書』, 『訓民正音解例』

2. 논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10+9』, 문화체육관광부, 2013.

權依經·李民聽 지음, 『五運六氣詳解與運用』, 김은하·권영규 옮김, 『오운육기학 해설』, 법인문화사, 2000.

김다은, 『훈민정음의 비밀』, 생각의나무, 2008.

김만태, 「모자음오행(母子音五行)의 성명학적 적용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9.

_____,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

_____,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_____,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의거한 모자음(母子音)오행성명학의 실증사례 분석」, 『민족사상』 14(3),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노마 히데키 지음, 『ハングルの誕生 音から文字を創る』,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옮김,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2018.

蒙培元 지음, 『理學範疇系統』, 홍원식·황지원·이기훈 옮김,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백두현·이미향·안미애,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2013.

蕭吉 지음, 『五行大義』, 김수길·윤상철 옮김, 『五行大義』, 대유학당, 1998.

알브레히트 후베, 『알기 쉬운 날개를 편 한글』, 박이정, 2021.

유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유정기, 『국학문제논집』, 상지사, 1979.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이성구, 『훈민정음연구』, 동문사, 1985.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78.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최경봉·시정곤·박영준,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함께, 2013.
코리아 스토리 기획위원회 편, 『한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 허원미디어, 2017.
한국사상연구회,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9.

3. 기타 자료

『조선일보』, 2021.09.17.
〈SBS 뉴스〉, 2014.05.25.

〈Abstract〉

Study on the Thoughts of Yin-Yang Assignment, Five-Elements Coexistence, and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Implied in Hangeul

Kim, Man-Tae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s implied in consonants, vowels, and double letters of Hangeul(Korean alphabet) by focusing on the thoughts and system of yin-yang assignment, five-elements coexistence, and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existing in the foundation and structure of Hangeul creation. The creation of Hangeul which is our own characteristic script is not just the formation of a single script, but the formation of our community basis for our people to develop philosophical thinking.

Everything in nature between heaven and earth has its own sound and shape, and human beings also exist in nature between heaven and earth, so they also have speech sounds. As the letters are created to express humans' speech sounds, the letters are made by following the reason included in speech sounds. The creators of Hangeul were greatly interested in the reason. Thus, the reason of nature between heaven and earth that created Hangeul is the inverse-philosophical reason such as Taegeuk and yin-yang, tri-origins of heaven-earth-human, and five-elements.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that symbolizes Korea, Hangeul is the best cultural heritage the whole nation can boast it to the whole world. However, there are only few people who accurately know about what kind of philosophy and principle were applied to the creation of Hangeul. Thu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yin-yang assignment and five-elements coexistence included in Hangeul consonants, the yin-yang assignment, five-elements coexistence, and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included in Hangeul vowels, and the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included in syllables of Hangeul double letters.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ed to be helpful for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angeul by analyzing the meanings of consonants, vowels, and double letters of Hangeul focusing on the thoughts and system of yin-yang, five-elements, and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placed in the foundation of Hangeul creation.

* Key Words: Hangeul(Korean Alphabet), Hunminjeongeum, Yin-Yang and Five Elements, Tri Origins of Heaven-Earth-Human, Moja-eum-ohaeng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of Vowels and Consonants)

· **논문투고일**: 2022년 1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17일 · **게재결정일**: 2022년 3월 17일